

김선빈·김도영 부상... KIA, 이기고도 웃지 못했다

3안타 김도영 발등 골절상 SSG와 2차전서 9-5 승리



KIA 타이거즈가 시즌 시작과 함께 부상 약재를 만났다. 김선빈이 발목 부상으로 결장한 2일 김도영이 발등 골절을 당했다.

KIA가 2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시즌 2차전에서 변우혁의 홈런 포함 장타 13안타로 9-5 승리를 거뒀다. 선발로 나선 이의리는 6개의 볼넷을 허용하는 등 제구 난조에 몰렸지만 타선의 지원 속 5이닝 3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다.

전날 타선 집중력 부재와 불펜 난조로 기록한 1-4 역전패의 아쉬움을 달래는 승리였지만, 부상으로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KIA는 1일 개막전에서 '캡틴' 김선빈을 3번 타자 겸 2루수로 해 경기를 풀어나갔다. 하지만 2일 김선빈을 대신해 김규성이 2루를 지켰다. 전날 김선빈이 주루 도중 발목을 다쳤고, 이날 경기에는 나서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라 엔트리 말소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2일 다시 또 부상자가 나왔다. 올 시즌 김중국 감독이 '키플레이어'로 주목한 김도영이 4회초 홈에 들어오다가 부상을 입었다.

홈에 들어온 직후 자리에 주저앉아있던 김도영은 결국 4회말 수비 때 류지혁과 교체됐다. 병원 검진 결과 왼쪽 5번째 중족골(왼쪽 발등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날 김도영이 세 타석에서 모두 안타를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한 만큼 KIA는 시즌 시작부터 큰 부상 약재를 만났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KIA는 시원한 공세로 승리를 쟁겼다.

0-0으로 맞선 2회초 1사에서 변우혁이 첫 타석에서 홈런으로 '신고식'을 했다.

5번 타자 겸 1루수로 선발 출장하며 KIA 선수로 첫 경기에 나선 변우혁이 맥카티의 직구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렸다.

리드는 오래 가지 못했다. 1회부터 3개의 볼넷으로 진땀을 흘렸던 이의리가 2회말 바로 역전을 허용했다.

선두타자 박성현에게 우익수 키 넘는 2루타를 맞았고 1사 3루에서 김민식에게 우전 적시타를 내줬다. 추신수를 다시 볼넷으로 내보낸 이의리는 2루 베이스가 빈 상황에서 견제구를 던져, 실책도 기록했다. 1사 2:3루, 최지훈의 2루 땅볼로 1-2이 됐다.

전날과 달리 KIA 타선이 활발하게 움직였다.

3회초 2사에서 박찬호가 우전 안타, 김도영은 내야 안타로 분위기를 살렸다. 소크라테스까지 안타를 이어가면서 KIA가 2-2로 균형을 맞췄다.

그리고 4회 KIA가 변우혁의 볼넷을 시작으로 빅이닝을 만들었다.

이창진의 좌전안타에 이어 김호령의 번트 안타로 무사 만루가 됐다. 한승택의 땅볼로 홈에 들어오던 변우혁이 아수룩했지만, 1사 만루에서 '대타 작전'이 성공했다.

김중국 감독이 김규성을 대신해 '최고참' 최형우를 타석에 세웠다. 최형우는 4구 승부 끝에 우측으로 공을 보내 2타점을 올렸다. 박찬호와 김도영도 안타를 이어가면서 순식간에 6-2가 됐다.

박찬호는 3루 도루까지 성공하면서 상대 배터리를 흔들었고, 1사 만루에서 황대인 우익수 뒤로 공을 보내면서 승부의 추를 일직 기울였다.

이의리는 승리투수가 되는 마지막 길목에서 수비에 울고 울었다.

8-2로 앞선 5회말 이의리가 선두타자 최지훈에게 볼넷을 허용했다. 에레디아와 최정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낸 뒤 김강민과의 승부에서 3루 땅볼을 유도하면서 이닝이 끝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3루수 류지혁의 약속구가 나오면서 8-3이 됐다.

이어 이의리가 오태곤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흔들렸다. 이때 투수는 96구에 이르렀다.

박성현을 마주한 이의리. 5구째 승부 끝에 박성현의 타구가 우중간으로 멀리 날아갔다. 실점이 예상되는 순간이었지만 김호령이 몸을 날려 공을 잡아내면서, 이의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일 인천 SSG 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4회초 KIA 공격 1-3루 상황에서 KIA 김도영이 좌전 안타를 치고 1루에 안착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FC, '차·포' 때고도 수원에 2-0 승리

아사니·엄지성·토마스 빼고도 이민기·박한빈 연속골로 승리

광주FC가 '차포'를 때고도 수원FC를 상대로 연승을 달렸다.

광주가 지난 1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2023 5라운드 경기에서 이민기와 박한빈의 골을 더해 2-0 승리를 거뒀다.

이날 광주는 공격의 핵심 아사니, 엄지성, 토마스를 빼고 경기에 나섰다.

아사니는 처음 알바니아 국가대표에 발탁돼 유로 2024 예선을 소화하느라 피로가 쌓였고, 엄지성도 A매치 휴식기 기간 올림픽대표팀 소속으로 도하컵 U-22 친선대회에 참가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1-2위 결정전에서는 상대 선수와 충돌하면서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기도 했다.

토마스는 훈련 도중 발목 염좌를 입는 등 핵심 멤버들이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광주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골을 만들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두현석이 오른쪽에서 띄운 공을 상대 수비수가 머리도 공을 건어냈지만, 이민기가 달려들어 오른쪽으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시원한 첫 골을 장식했다.

이날 프로 데뷔전에 나선 3년차 주역재도 초반 분위기 싸움에 한몫을 했다.

전반 14분 왼쪽에서 공을 잡은 주역재가 페널티 지역까지 진입한 뒤 대표골 슈팅을 날렸다. 상대 골키퍼 노동건의 좋은 수비에 막히면서 어렵게 데뷔전 데뷔골을 올렸지만, 주역재는 17분에도 시원한 슈팅을 선보이면서 잊지 못할 데뷔전을 치렀다.



박한빈

전반 중반 분위기는 박한빈이 주도했다.

박한빈은 전반 27분 김한길의 패스를 받아 논스톱 슈팅을 날리면 시선을 끌었다. 골대 불운에 울었지만 전반 36분에는 주인공이 됐다.

이희균을 시작으로 김한길-이민기-산드로가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상대 진영으로 침투했다. 그리고 산드로가 뒤로 넘겨준 공을 잡은 박한빈이 오른쪽 발로 터닝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43분에는 '이적생' 오후성이 골 세리머니는

선보였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오후성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산드로가 키커로 나서 공을 때렸지만 상대 골키퍼에 막혔다. 이때 오후성이 흐른 공을 잡아 골대를 갈랐지만 키커가 움직이기 전에 페널티 박스에 먼저 집범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무효골이 됐고, 경기는 2-0으로 마무리 됐다.

'차포'를 때고 치른 경기에서 시원한 골을 선보인 이민기는 "공이 오는 순간 '아 됐다. 올게 왔다'고 생각했다"며 득점 순간을 이야기했다.

박한빈은 "기분이 좋다. 골 순간이 기억이 안 난다. 열심히 했는데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골 세리머니할 정신도 없었다"고 웃었다.

우려를 씻어낸 승리. 하지만 '승장' 이정효 감독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준비한대로 선수들이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한 것 같다"면서도 "많은 팬분이 오셨다. 조금 더 즐거운 경기를 더 잘 보일 수 있었는데 슈팅 대비 득점이 안 나온 부분을 반성해야 할 것 같다. 홈에서 연승을 이어가서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전하고 싶다"고 아쉬움을 이야기했다.

앞선 인천전에서 5-0 대승을 거뒀던 광주는 이날 17개의 슈팅을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됐지만 2득점에 만족해야 했다.

이정효 감독은 또 "광주 시민들이 경기장에 많이 오게 하려면 어떤 축구를 해야 되는지, 어떤 축구를 해야 즐겁게 보실까 생각을 했다. 그래서 홈경기 때는 더 공격적인 부분을 주문한다. 경기장을 노란색으로 물들이고 싶은 바람이다. 매 경기 경기장에 오신 팬분들이 즐거운 축구를 추구해야 한다"며 '공격적인 축구'를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뜨거운 EPL 우승 경쟁

맨시티 대승에 아스널도 승리로 승점 유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우승 경쟁이 뜨겁다.

2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가 리버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자 선두 아스널도 똑같은 3골 차 승리로 격차를 유지했다.

맨시티는 1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 EPL 29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을 4-1로 크게 이겼다.

비록 올 시즌 리버풀이 다소 부진해 중상위권으로 처져 있지만, 2010년대 후반부터 EPL의 양강 구도를 형성해온 두 팀의 맞대결이어서 팽팽한 승부가 기대됐다.

더불어 맨시티는 '괴물 공격수' 열링 홀란이 노르

웨이 대표팀에서 A매치를 소화하다가 사타구니 부상을 당해 전역에서 이탈한 터였다.

리버풀이 먼저 앞서나갔다. 전반 17분 역습 상황에서 디오구 조타가 골지역 정면에서 뒤로 내준 공을 무함마드 살라흐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넣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맨시티가 그라운드를 지배했다.

홀란 대신 최전방에 선발 출격한 홀리안 알바레스가 전반 27분 잭 그릴리의 패스를 받아 문전 슈팅으로 동점골을 뽑았다.

맨시티는 후반 중반 싸움에서 리버풀을 압도하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상대 위험지역에서 토피

바리처럼 돌아가는 패스워크와 예리한 슈팅으로 대량 득점을 올렸다.

후반 1분 만에 케인 더브라워너의 역전 결승골이 터졌고, 후반 8분 일카이 칸도안, 후반 29분 그릴리의 연속골이 이어졌다.

맨시티의 기쁨은 몇 시간 만에 반감됐다.

선두 아스널 역시 리그 유니티드와 홈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점수도 맨시티-리버풀전과 똑같은 '4-1'이었다.

6연승을 달린 아스널은 선두(승점 72:23승 3무 3패)를 굳게 지켰다. 2위(승점 64:20승 4무 4패) 맨시티와 격차를 승점 8로 유지했다.

다만, 맨시티는 리버풀보다 한 경기를 덜 치렀다.

부상에서 돌아온 가브리엘우 제주스가 멀티골을 작성하며 아스널의 승리에 앞장섰다.

전반 35분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고 후반 10분에는 레안드로 트로사르의 패스를 문전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아스널의 3번째 득점을 뽑았다. /연합뉴스

"생각 짧았다" 손흥민과 SNS 끊었던 김민재 사과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 밝혀 논란을 빚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나폴리·사진)가 손흥민(토트넘)과 소셜미디어(SNS) 상 관계를 끊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오해 탓이라고 사과했다.

김민재는 1일 소속사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제가 생각이 짧았다, 잘못했다"라며 "흥민이 형께 따로 연락해 사과드렸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김민재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마치고 취재진에 "멘탈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라며 "축구 면에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팀보다는 이제 소속팀에서만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대표팀보다 소속팀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돼 팬들의 공분을 불렀다.

김민재는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며 태극마크를 소중히 여겨왔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김민재가 논란에 휩싸인 사이 반대로 손흥민(토트넘)이 3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기간 대표팀에 소집돼 영광이라는 소감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히며 이목을 끌었다.

마침 비슷한 시기 김민재와 손흥민이 SNS 계정 관계를 끊은 흔적이 포착되면서 축구팬들 사이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이 불거졌다.

둘은 현재 인스타그램을 다시 팔로우한 상태. 김민재는 "흥민이 형이 항상 대표팀 소집이 끝나면 그런 글을 올리시는데, 제가 전날 진행했던 인터뷰로 인해 오해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라고 전했다.

우루과이전 직후 '문제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다시 해명했다. 김민재는 "아시다시피 제가 단기간에 좋은 팀에 가게 되며 대중들, 미디어들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이전에 대표팀에서 했던 것들이 어려워졌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실질 장면, 상황들에 더 예민해지고, 더 잘 해야겠다는 압박 속에 스트레스가 있어 실연했던 것"이라며 "대표팀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자리라 봐 부담감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한 번도 동일한 생각으로 운동장에 나간 적은 없다"라고 전했다. /연합뉴스